

2014년 5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4.5.29(목) 15:00~16:3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재난보도시 개선 및 유의사항

-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언론에서 밝은 면을 보도해준다면 좋을 것. 미국의 경우 911사태 때 언론보도의 중심에서는 의사자와 영웅을 발굴하는 데에 사고현황 만큼이나 신경을 쓰며 상당한 비중을 쏟았음(이용우 위원)
-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문제만 제기하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캠페인도 필요한데 매체들이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듯함. 미국의 경우 못을 박을 때에는 보호안경을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드라마 등에서 심장마비 환자의 응급치료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인공호흡과 심장 압박을 동시에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함. 인공호흡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압박만 하는 것이 살리는 좋은 방안이라고 함. 이렇듯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안전관련 문제들에 대해 캠페인 필요하다고 생각함(이용우 위원)
- 14일 뉴스1번지 세월호 관련 보도시 오른쪽 상단 탑승, 구조 실종 상황을 알리는 표가 뉴스 진행 내내 상시 표시가 되어 있었음. 상황을 모르는 시청자가 거의 없을 것이고 사고가 일어난 지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상황판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정보제공의 효과보다는 화면을 가리는 역효과가 더 큼(성낙용 위원)
- 시사평론가와 문화평론가 패널로 참석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사건을 돌아보며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것은 의미있으나, 에어포켓 가능성의 희망과 희망고문에 대한 의견, 해경 구조 과정에서의 희망말살에 가까운 대응, 사고 초기의 원인과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음모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었던 얘기들이어서 신선함이 부족했음(성낙용 위원)
- 세월호 사건관련해서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와 관련한 심층보도 분석하는 내용의 방송이 필요하다고 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패널중심의 정보나열식이나 토크 수준의 전달방식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이 점이 있지만 다양한 매체에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접했기 때문에 식상함. 참사와 관련한 내용을 원인, 구조의 문제, 미디어 전달 방식의 문

제, 정부의 문제, 선사를 포함한 전체 사회의 문제, 여론의 향방, 이후 대응방안 등 뉴스전문채널의 전문성을 살린 특집프로그램의 편성이 필요해 보임(성낙용 위원)

- 추후 재난 보도 매뉴얼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보도 매뉴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갑작스런 참사에 대한 보도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도 매뉴얼을 점검하기 바람. 매년 겪는 일이지만, 이제 얼마 후에는 장마와 태풍이 오고,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이 내릴 것이고,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안타깝게도 매년 겪는 장마와 태풍, 폭설 등에 대한 보도가 천편일률적이고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함. 이제부터라고 매년 겪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도 매뉴얼을 점검하고,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도를 해주기 바람(최현철 위원)
- 금수원 방문 뉴스에서 금수원측의 짜여진 각본대로 취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라도 언론이 역이용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사전준비와 대응 보도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았음(이용진 위원)

▲ 정확하고 심층적인 보도 필요

- 뉴스속보의 띠자막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자체적인 제어 및 검증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음. 5월 2일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 부상자 정보 전달에서 띠 자막과 보도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했음. 부상자 170명, 117명 정보가 동시에 제공됨. 화면 내 속보를 제공하는 코너가 많은 것은 좋으나 정보의 일관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문제일 수 있음. 5월 10일 저녁 11시 22분 노란 띠 속보에서 프로야구 경기 결과를 전하는데 10일 당일 결과가 아닌 9일 결과가 전달되었음(양승찬 위원)
- 최근 유병언씨의 장녀 섬나씨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었다는 보도 내용 중 연합뉴스의 기자가 프랑스에 주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프랑스 내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프랑스 법무부나 관련 법조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보다 심층적인 보도를 해 주었으면 함. 여러 방송이 동일하게 보도하고 있지만, 프랑스법상 체포 후 40일간 구금할 수 있다는 뉴스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며, 이와 같은 오보는 프랑스 주재 기자들의 노력을 통해 극복하고, 이를 넘어 프랑스 법원이나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 향후 일정 등에 관해 좀 더 생생한 뉴스를 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임(최진녕 위원)
- 안전 점검 기획보도가 필요함. 세월호 사건이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안전사고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안전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중요함. 지상파 방송에서 저녁 8시 뉴스에서는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뉴스Y 에서도 안전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최현철 위원)

- 새로운 내용 없이 같은 질문이 반복되어 같은 장면 연출 정도가 타 방송국에 비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됨. 북한의 도발과 세월호, 유병언 비리 등 사건이 큰 이슈였기는 하나, 같은 장면을 반복 노출 시키는 것 보다는 심층취재를 통한 내용의 추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김연화 부위원장)

▲ 화면구성 및 불필요한 표현 등 개선필요

- 뉴스Y의 진행이나 띠자막, 실시간 스크롤에 특별히 외래어, 외국어, 한자가 여전히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사용되고 있음. 특히 한자의 경우 풀어쓰지 않고 지나치게 줄여서 쓸 경우 의미전달이 되지 않는 사례와 인물의 경우 시청자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이름만 제공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직함 등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정보를 추가로 넣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음(강대인 위원장)
- 한자의 경우 한글로 표현해도 되는 부분을 구지 불필요한 한자로 표현하는 경우는 줄였으면 좋으며, 외래어의 경우에도 한국도로공사 앵커의 진행내용에서 어린이 안전캠페인을 소개하면서 어린이용 베이비 카시트를 장착해야 안전하다는 내용인데 계속 카시트라고만 표현했음. 카시트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용 안전의자나 시트벨트 보다 안전띠라고 우리말로 전달해도 되는 표현을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방송사로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함(강대인 위원장)
- 자막에서 장시간 시청시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선책이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김용주 위원)
- 4일 23시 뉴스 기사배열이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김연아 은퇴 공연 소식→기상뉴스(황사)→시외버스 화재 사고→아프간사태(국제)→여고생 살해 등의 기사 순으로 진행됐음. 이는 연성뉴스와 경성뉴스가 혼재되어 있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뉴스의 기사 배치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있음. 중요도에 따라 기사의 순서가 정해지겠지만 가급적 연성뉴스는 연성뉴스 끼리 경성뉴스는 경성뉴스 끼리 묶어 배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성낙용 위원)
- 12일 뉴스1번지 세월호 참사 관련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분석이 돋보였음. 하지만 해경 구조과정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예산의 문제(전체 예산 중 안전 구조에 1.6%만 쓰임), 이후의 대책(해경의 해체에 대한 여론)에 대한 의견과 선사의 문제 등 정확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좋았음. 하지만 전달 과정에서 패널의 얘기나 단순 자막처리로만 진행하는 것 보다는 분석 보도시 전체적인 상황, 문제점, 대책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CG자료 등을 활용하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보임(성낙용 위원)
- 20일 뉴스1번지에서패널 소개 자막이 들쭉날쭉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출연하였는데 4분여 진행이 되고 난후 출연진에 대한 자막이 표시되어 출연인 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음(성낙용 위원)

- 23일 24시 뉴스리뷰에서 뉴스속보로 '경인선 운행 중단' 자막이 있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다른 뉴스를 진행하다보니 오히려 궁금증만 자아내고, 슬그머니 자막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오히려 불편했음(이용진 위원)
- 뉴스 와이 화면 구성이 산만해 보임. 왼쪽 상단에 빨간색으로 <뉴스특보>나 <뉴스 제목>을 제시하고, 뉴스 화면 안에는 <자막>을 보내고 있고, 화면 아래에는 <연합뉴스 실시간 주요 뉴스>를 자막으로 보내고 있음. 시청자에게 다양한 내용을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고, YTN이나 종편 뉴스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뉴스 와이만 하지 않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시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도 적지 않음. 심하게 표현한다면 화면 구성이 산만하여 뉴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화면 왼쪽 상단에 빨간색으로 전달하는 <뉴스특보>나 <뉴스 제목>은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5월 첫 주말에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철거건물 붕괴 관련 뉴스 또한 동일한 취재 영상이 여러 번 노출되어 뉴스가 새롭지 못하다는 시청자들의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웠음(김연화 부위원장)

▲ 방송 출연자 전문성, 중복출연 등 문제

- 출연자의 방송사 중복 출연문제는 함께 느끼는 점임. 뉴스보도는 6곳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제한된 인력이 중복이 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 점이 풀어야할 문제임(강대인 위원장)
- 18일 저녁 9시 신윤의 정정당당에서 유병헌의 전비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오늘 타사에서도 동일인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뉴스Y의 진행이 좋았고 매우 신선했음(강대인 위원장)
- 타방송사 시사평론가들 여러 방송국에 동시 출연하고 있어 같은 내용을 여러 방송에서 보고 있음. 겹치기 출연하지 않도록 섭외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김용주 위원)
- 타방송의 출연한 패널들이 전문가가 없고 방송인만 있는 것 같음. 여러 방송사에 중복 출연하는 정치평론가 북한전문가 등 동일한 패널들 말고 자체적으로 기자가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로 대체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해 봄(이용우 위원)
- 8일 맹찬형의 시사터치 뉴스 속보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 이완구 대표가 선출됨을 알리면서 인물 소개시 패널(알엔서치소장)의 매끄럽지 못한 답변으로 준비되지 않은 인상을 주었음. 이완구 대표의 선출 배경, 경력, 선출 이후의 행보 등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패널 선정이 필요해 보였음(성낙용 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출연하여 대통령 대국민 담화 관련 내용과 유병언 회장의 수사와 관련한 태도와 대응 등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패널

의 출연 입장이 모호하게 비춰짐. 시청자의 입장에서 자막에 패널이 소개된 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으로 출연하여 답변한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었으나 앵커가 명확하게 당의 입장을 질문한 것인지 개인의 입장을 질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아쉬웠음. 패널 소개시 "대변인을 통해 당의 입장을 들어 보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등의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성낙용 위원)

- 신울의 정정당당이 그래도 뉴스Y의 주요 코너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메인 진행자인 신울 교수가 타방송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전속계약이 아니라 막을 방법이야 없겠지만 대표 프로그램 진행자가 타방송의 패널로 참여해 많이 아쉽게 느껴졌음(이용진 위원)
- 24일 아침 뉴스 시간에 단정치 못한 기자의 헤어스타일(긴 머리)이 뉴스 내용보다 더 인상에 남아 정보 전달력이 저해되었음. 무게가 있는 뉴스 내용 전달에 있어 시선을 분산시키는 기자 헤어스타일 등 용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또한 아나운서에 대한 정보를 함께 미리 고지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뉴스의 경우는 아나운서의 표현력 및 전달력에 따라 방송 선택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김연화 부위원장)

▲ 지방선거 보도관련 의견

- 이번 지방선거 관련 보도시 후보자 공약 실현성을 분석해서 실천 사례를 조사했으면 함. 최근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한 후보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육교사 7만 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니까 다른 후보는 보육교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과연 이런 공약이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시청자들 혼란 없도록 언론에서 짚어줬으면 함(김용주 위원)
- 선거 여론조사 보도시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데 주의가 필요함. 5월 7일 저녁 보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표현을 사용함.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 각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 앞서거나 뒤진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음. 5월 24일 광주 지역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도의 경우에도, 오차범위 접전의 결과를 가지고 여전히 후보자간 순위를 정해 보도함(양승찬 위원)
- 지방선거관련 출구조사시 뉴스Y는 당일 보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궁금함. 타사에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다 큰 망신을 당한 경우도 있어서 혹시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실지 우려되어 질의했음(양승찬 위원)
- 지방선거 관련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당선을 가정해 인터뷰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당선자의 내용만을 보도한다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봄(강대인 위원장)

- 지방선거관련 내용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쟁점이슈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야별로 나누어 기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음(이헌규 위원)
- 15일 종합뉴스에서 3명의 패널 참석하여 6.4 지방선거 관련 대담으로 서울시장의 선거 전략,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 등을 중심 내용으로 진행했음. 선거 관련 내용에서 당이나 후보의 어떤 선거 전략이 필요한지를 예견형식의 대담으로 진행하였는데 선거를 앞두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봄.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당과 후보의 전략보다는 각 후보의 장단점, 주요 공약, 역량 등을 점검해서 시청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봄(성낙용 위원)

▲ 긍정적인 평가

- 28일 북한은 오늘 프로그램이 매번 좋게 느껴지지만 어제의 경우에도 남북한 안보라인에 대한 비교를 했음. 북한의 지리라든지 국정이라든지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비해서 북한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전문가 대담프로그램으로써 매우 유익했음. 단순한 보도보다는 이러한 유익한 내용의 소개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더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강대인 위원장)
- 14일 출발 640에서 해외의 재난대응 관련 뉴스를 전달했는데 시기적으로 이러한 뉴스를 소개하는 것이 늦었지만 그 자체는 바람직한 기사였으며 19일, 대통령 담화와 '맹찬형의 시사터치' 프로그램, 서울시장 토론을 잘 연결했음. 발생한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면서 시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배경을 잘 설명했음(양승찬 위원)
- 국제뉴스에서 이번에 국제사회의 재난방지에 대한 노력은 현장성을 잘 살린 것 같으며, 북한은 오늘에서의 내용과 타방송사의 내용이 서로 다른데 뉴스Y가 보다 심층적으로 보도했다고 봄(이헌규 위원)
-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세월호 관련 루머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처벌보다는 진실을 밝히면 루머는 자연적으로 잠잠해질 것이라는 의견과 사건의 전달에서 다매체 다채널의 폐해를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봄(성낙용 위원)
- 김연수 문화평론가는 미디어의 보도 방식을 지적하면서 전 채널의 천편일률적 보도를 지적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한 뉴스보도의 필요성, 미디어의 선정적이고 경쟁적 보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좋았음(성낙용 위원)
- 세월호, 금수원, 지차제장 선거 등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차별하게 전체적인 진행을 잘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며, 그 노고에 감사함(이용진 위원)
- 12일 뉴스현장14 이건희 회장 관련 뉴스에서 지난 10일 쓰러진 이건희 회장은 수술을 받은 뒤 저체온 요법으로 치료를 받으면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면

서 저체온 치료의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어 기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또한 연속 기사로 준비한 "삼성 '포스트 이견희 경영 준비' 급물살 탈 듯" 기사는 그룹의 경영승계 문제와 관련한 계열회사 지분구조 등의 기사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삼성그룹의 경영승계 문제, 지분구조 등 관심 사항 등을 연속 기사로 배치한 점이 좋았음(성낙용 위원)

▲ 기타

-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비용이 월등히 높음. 예를 들어 일본기업과 비교해보면 매출액대비 사회공헌 지출비중이 2.8배임. 지난해 상위 220개사 기준으로 일 년에 3조2,500억 원을 사회공헌 비용으로 쏟아 붓고 있지만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음. 우리사회의 밝은 면의 발굴 측면에서 위해서는 이런 좋은 내용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이용우 위원)
- 12일 뉴스현장14 이견희 회장 관련 뉴스에서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포스트 이견희 시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경제의 삼성 집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의 또 한 번의 연속기사를 기대 했는데 "북 김정은 전용기 1호 비행기 최초 공개" 기사로 이어져 아쉬웠음(성낙용 위원)
- 뉴스Y가 5월 23일부터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인 곰TV를 통해 24시간 뉴스 생중계 및 VOD(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것에 대해 시청자로서 환영함. 곰TV가 서비스하는 콘텐츠 가운데 뉴스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직접 곰TV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뉴스Y 서비스 시작에 관한 공지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은 아쉬움. 특히 곰TV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도 뉴스Y에 관한 메뉴가 없어서 일부러 검색창에 "뉴스Y"를 타이핑해야 했던 점은 개선해야 할 것 같음. 반면, 요일별 BEST 프로그램이라는 목록에서 KBS, MBC, SBS의 경우 바로 클릭해서 방송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시청자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최진영 위원)
- 주말 특히 토요일 오후 속보가 일요일 저녁 뉴스까지 계속 방영되는 중복편집 뉴스가 다수 있는데 뉴스의 신선함이 없는 것으로 보임(이용진 위원)
- 수화 통역을 해 주는 정오뉴스로 인해 농인들이 감사해 하고 있음. 앞으로도 더욱 약자를 배려해주는 언론으로 좋은 이미지가 창출되면 좋을 것이며, 사회적 약자와 대중이 중심이 되는 차별화된 언론사가 되는 것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 된다고 생각함(김연화 부위원장)

(끝)